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빠른 정답

1	2	3	4	5
①	⑤	③	③	④
6	7	8	9	10
④	①	④	③	⑤

1. 실천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①**

- [제시문 분석] (가)는 실천 윤리학, 을은 메타 윤리학이다.
 [선지 분석] ① 실천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의 핵심 과제가 삶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본다.
 ② 실천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의 핵심 과제를 도덕적 추리와 논증 방법 연구라고 보지 않는다. 이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③ 메타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의 핵심 과제가 도덕적 관행에 대한 인과적 서술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는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④ 메타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의 핵심 과제가 경험적 연구를 통한 도덕성의 검증이라고 보지 않는다. 경험적 연구, 다시 말해 과학적 연구를 통해 도덕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학문은 진화 윤리학이나 신경 윤리학 등의 분야이다.
 ⑤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 아니다. 메타 윤리학에서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 윤리학에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정립하고자 세워 놓은 논증의 논리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라고 한다고 본다.

2. 유교 사상, 도가 사상, 불교 사상의 죽음관 이해하기 **정답 ⑤**

- [제시문 분석] (가)는 유교 사상, (나)는 도가 사상, (다)는 불교 사상이다.
 [선지 분석] ① 유교 사상에서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자세를 강조한다. 살신성인이란 자기의 몸[身]을 희생[殺]하여 인(仁)을 이룬다[成]는 의미이다. 유교 사상에서는 삶보다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비슷한 말로 사생취의(捨生取義)가 있다. 사생취의란 목숨[生]을 버리고[捨] 의(義)를 좇는다[取]는 뜻으로, 목숨을 버릴지언정 옳은 일을 함을 이르는 말이다.
 ② 도가 사상에서는 유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인의(仁義)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인위적 규범으로서 인간이 멀리해야 할 인의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면, 도가 사상에서는 이를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볼 것이다.
 ③ 불교 사상에서는 연기의 법칙, 즉 만물이 상호 의존 관계에 있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삶과 죽음이 반복된다고 본다. 불교 사상에 따르면 이러한 윤회는 고통의 연속이므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한데,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윤회의 원인, 즉 연기의 법칙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④ 유교 사상과 도가 사상 모두 태어남과 죽음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본다. 이는 죽음관 단원의 모든 사상에서(또는 사상가들이) 동의할 내용이다.
 ⑤ 도가 사상의 입장이 아니다. 도가 사상에서는 내세를 논하지 않는다.

3. 도가 사상과 유교 사상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③**

- [제시문 분석] (가)는 도가 사상, (나)는 유교 사상이다.
 [선지 분석] ① 도가 사상에서는 사회 규범을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위배되는 인위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배척한다.
 ② 도가 사상에 따르면 성인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식을 버린 자이다.
 ③ 유교 사상에서는 충서(忠恕)의 자세를 강조한다(2주차 하프 모의고사 7번 문항 ③ 해설 참조).
 ④ 유교 사상에서는 인을 실현할 것을 강조하지만, 무욕(無欲)과 무지(無知)의 삶을 유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바가 아니다. 무욕과 무지의 삶은 도가 사상에서 강조하는 바이다.
 ⑤ 도가 사상의 입장이 아니다. 도가 사상에서는 성인이 예의(禮義)를 멀리해야 한다고 본다.

4. 매킨타이어와 벤담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③**

- [제시문 분석] 갑은 덕 윤리 사상이 매킨타이어, 을은 공리주의 사상이 벤담이다.
 [선지 분석] ① 반대로 벤담이 매킨타이어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벤담은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행위자의 품성보다 행위의 유용성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매킨타이어는 덕 윤리 사상가로서 자체보다는 행위자에 주목하면서 행위의 유용성보다는 행위자의 품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② 반대로 벤담이 매킨타이어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벤담은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공리의 원리라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지만, 매킨타이어는 덕 윤리의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보다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중시한다.
 ③ 매킨타이어는 덕 윤리 사상가로서 공동체의 전통과 맥락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적 입장에 있다.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가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며, 공동체를 개인들의 합 이상의 무언가로 바라본다. 반면 벤담은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자유주의적 입장에 있다. 자유주의에서는 공동체가 그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들의 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공리주의에서 공동체의 이익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이익을 합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다.
 ④ 벤담에게 제기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벤담은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개인이 타인의 행복을 고려하여 행위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반대로 벤담이 매킨타이어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벤담은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도덕 판단에 있어서 행위의 결과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반면 매킨타이어는 공동체주의적 덕 윤리의 입장에서 역사적 특수성을 도덕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한다.

5. 에피쿠로스와 플라톤의 죽음관 이해하기 **정답 ④**

- [제시문 분석]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플라톤이다.
 [선지 분석] ①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죽음은 고통스럽지 않다. 죽음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과 쾌락은 경험할

전제하는 것이므로,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면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일 수 없다.

②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악으로 보지 않는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선과 악은 각각 쾌락과 고통을 의미하므로, 전적으로 인간의 감각에 의존해 있다. 그러나 죽음 이후 인간의 감각이 소멸되므로, 죽음은 선이나 악이 아니다.

③ 플라톤은 인간이 죽음 이후의 세계, 즉 이데아계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④ 죽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은 플라톤을 비롯해 모든 사상가들이 동의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플라톤은 죽음이 이데아계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주므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⑤ 에피쿠로스의 입장이 아니다.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다.

6. 벤담과 칸트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④

COMMENT 빈출 개념을 다 따려 넣었다.

[제시문 분석] 갑은 공리주의 사상가 밀, 을은 의무론 사상가 칸트이다.

[선지 분석] ① 밀은 공리의 원리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도덕의 원리라고 보았다.

② 밀의 공리주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 즉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이다. 밀은 어떤 행위가 한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저해한다면 그 행위를 도덕적인 행위로 평가하지 않는다.

③ 칸트는 개인의 주관적 준칙이 보편화 정칙과 인간 존엄성 정칙에 부합한다면 보편적 도덕 법칙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칸트는 의무론의 입장에서 행위의 도덕성이 행위가 산출할 유용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⑤ 밀의 입장이 아니다. 밀은 질적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인간이 느끼는 쾌락에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7. 도가 사상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①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도가 사상의 입장이다.

[선지 분석] ① 도가 사상에 따르면 도둑은 법령이 많아지고 엄격해질수록 오히려 늘어난다.

② 도가 사상에서는 백성이 생명을 중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다.

③ 도가 사상에서는 통치자가 작은 나라와 적은 백성, 즉 소국과 민(小國寡民)을 지향하는 무위지치(無爲之治)를 해야 한다고 본다.

④ 도가 사상에서는 현자(賢者)를 높이지 않으므로써 사람들이 경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현자를 숭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유교 사상의 입장이다.

⑤ 도가 사상에 따르면 성인(聖人)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워주고 욕망을 약하게 해 준다.

8. 벤담과 칸트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④

[제시문 분석] 갑은 벤담, 을은 칸트이다.

[선지 분석] ① 벤담은 인간의 행위가 고통과 쾌락에 좌우된다고 보았다. 벤담에 따르면 쾌락 추구하고 고통 회피는 인간 행위의 목적이자 원인이다.

② 벤담은 행위의 옳음이 그 결과만을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다

고 보았다.

③ 칸트는 의무에 맞는 행위라도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면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④ 칸트는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칙인 준칙이 보편화될 수 있으면 도덕 법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반면 보편화될 수 없는 준칙은 도덕 법칙에 위배된다.

⑤ 칸트의 입장이 아니다. 칸트는 행복과 도덕이 필연적 연관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9. 칸트와 밀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③

COMMENT 양적 공리주의에서 보는 쾌락의 종류.

[제시문 분석] 갑은 양적 공리주의 사상가 벤담, 을은 질적 공리주의 사상가 밀이다.

[선지 분석] ① 밀이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밀은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공동체가 단순한 개인의 합으로 간주된다고 보았다.

② 밀이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밀은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였다. 결과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선한 의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의무론 사상가 칸트의 주장이다.

③ 밀은 질적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며, 그 사이에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밀에 따르면 질적으로 낮은 쾌락보다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반면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쾌락의 종류는 하나뿐이며,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벤담에게 제기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벤담은 행위의 도덕성 판단이 공리의 원리라는 보편적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밀이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밀은 질적 공리주의 사상가이지만 그가 쾌락의 양을 제외하고 질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행위가 유발할 쾌락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10. 밀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⑤

[제시문 분석] 그림의 강연자는 소수 의견 존중과 토론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밀의 주장과 유사하다.

[선지 분석] ① 강연자는 토론에서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② 강연자는 토론에서 참이라고 검증되지 않는 진술도 발언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③ 강연자는 토론에서 진리로 공인된 견해를 비판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강연자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완벽하다고 보지 않는다.

⑤ 강연자는 토론에서 오류라고 합의된 소수 의견도 진리 탐구에 기여한다고 본다.

* 확인 사항

○ 해설지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숙지했는지 꼼꼼히 확인하십시오.